

# 고은 불교 대하소설

## 구인회상(九人會上)

아직도 태종의 뒤끝이 남아 있는지 바다는 불면증 환자처럼 뒤척였다. 이제 이곳의 사람은 일곱으로 줄어들었다. 그런데 또 한번 여러 척의 선단(船團) 가운데서 슬그머니 한 척이 뒤처지다가 이 섬 뒤에 숨어든 것이다. 수부(水夫) 두 사람은 워낙 바다의 큰 풍랑에 단련된 목숨이어서인지 이 섬이 마치 아늑한 집으로 돌아온 줄 착각하기까지 하였다.

한 사람은 박가고 한 사람은 장기였다. 우녀가 인담에게 그들의 범명(法名)을 부탁하였다.

"아직 마음에도 없을까..."  
"그 마음 이쪽에 대고 지어주세요"  
라는 우녀의 말은 칼끝처럼 예리하였다.

인담이 입 안에 삼킬 것이 있는 것처럼 입을 움직이더니

"수원(水圓)과 수월(水月)로 부르도록 하기로..."

그때 우녀가 두 장정이 기대어 앉은 곳으로 다가갔다.

"당신들은 이번엔 죽은 목숨이요. 여기를 이승이 아니라 저승으로 살아야 할 것이요... 저승일진대 이곳 저승의 법에 따라 이제부터 당신들은 수행의 몸을 받

을 보필하는 역할 밖에는 어떤 역할도 할 수 없게 퇴화(退化)된 먼 옛날의 큰 짐승과 같이 되었다.

이마에 주름이 생겨났고 혼자 이 섬에서 살아갈 때의 그 외연한 기상이 없어진 채 부쩍 늙어있었다.

어쨌거나 이제 아홉사람의 섬이 되었다. 만화는 서산이나 안면도에 자주 배를 저어 나가야 하였다. 그의 익숙한 배수선으로 배 세척이 그런대로 할 수 있게 되었다.

사실인즉 난파선의 선창 안에는 살아난 두 사람을 의해서 잘 감주어둔 고려 청자와 조선 중기의 백자 그리고 청나라 복주(福州)에서 만든 비단 물건들을 꺼내게 되었다. 그것뿐이 아니었다. 조선의 엄전 꾸러미 여러통치와 청나라 주화(鑄貨)와 은괴(銀塊)도 있었던 것이다.

이제 무욕도는 먹을 것을 걱정하는 궁핍의 곳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런 걱정이 없는 대신인지 다른 일들이 생겨나서 섬의 단조로운 일상에 이따금 작은 파문을 일으키게 된다.

바로 어리굴개펄 넘어에 있는 마을에서 이곳에 사람들이 늘어난 것을 수상하게 여겨 현(縣)의 형방(刑房)에서 포졸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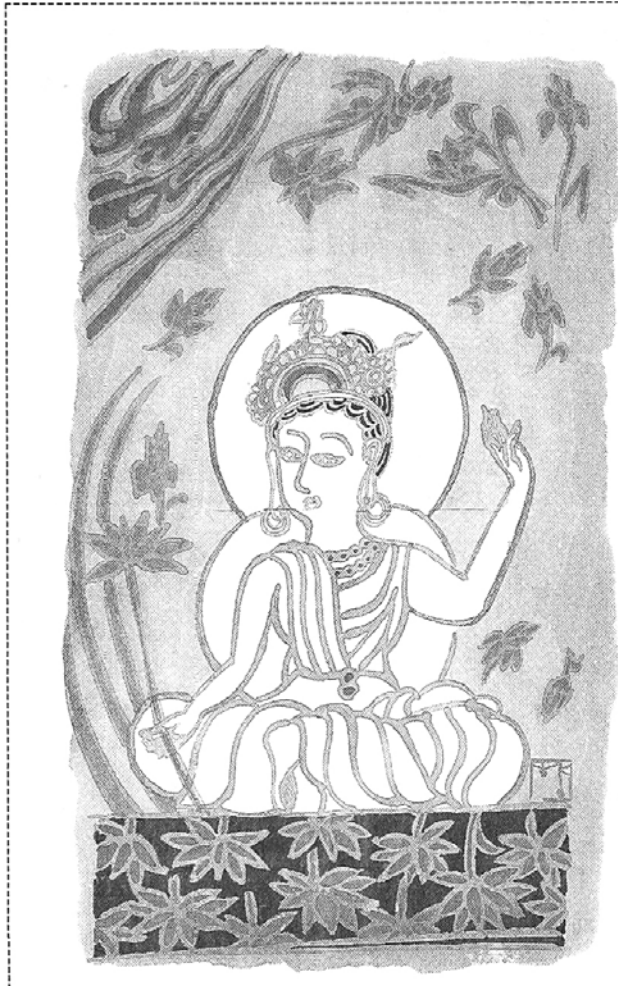


그림 · 조향숙

### '내가 데리고 온 실성한 남자가 알고본즉 관음의 후신인가 천녀의 후신인가' 인담은 표현할 수 없는 사모의 정을...

은 것이요. 그래서 당신들의 이름이 수원이요... 두 이름 중에 하나를 가지시오. 하나는 동방의 아홉불을 향하고 하나는 서방의 아미타불(阿彌陀佛)을 향하게 될 것이요. 그러기 위해서 1천나라 10만여나라를 더 내고 죽어가며 지나가야 할 것이요..."

"우선은 이 무욕도 소나무 위에 올라가 새 동지나 틀기 바라오"

"?"

"날마다 오후에 올라가 거기 앉을 자리를 만들어 앉은뱅이가 되라는 뜻이오"

이렇게 두 사람을 마구 다그치자 그들은 쾅쾅한 햇볕에 드러난 누에처럼 어떤 생각도 할 수 없게 되어 한 사람이 수원이 되고 한 사람이 수월이 되어버린 것이다. 금생(今生)이라는 것이 이렇듯이 전생(前生)에 대한 무력(無力)이란 말인가.

남처사가 그들의 망가진 상투머리를 식도(飢刀)로 밀어서 민둥대기리를 만들었다. 전혀 딴 사람이 되었다.

두 사람은 어이없이 서로 삭발 뒤의 얼굴을 마주 보며 끝내 쓴 웃음을 주고 받았다.

이제 우녀는 무욕도의 지도자가 되었다. 그녀의 말 한 마디가 엄연한 계율이 되는 것이었다. 정작 인담은 그런 우녀

이 건너오는 일도 있었다. 물이 왔다가 아홉사람이나 살고 있는 사실을 알고 슬그머니 겁을 내는 것이었다.

"이런 무인도에 웬 사람들이냐? 혹시 여기다 별세계(別世界)를 만들어 본토(本土)를 시그럽게 하는 것은 아닌가?" 라는 노골적인 심문까지 하였다.

우녀가 나섰다. "이곳은 홍길동(洪吉童)의 나라도 아니고 허균(許筠)선생의 나라도 아닙니다. 그저 한번 주저앉아 세상에서 버림받은 불법(佛法)을 고즈넉히 지켜나가는 것 뿐입니다. 고을에서 나온 분들에게서도 혹시 복을 빌고자 하시거든 이곳 청정한 수행처에 그 복의 소원을 맡기시지요"

그녀의 말에 두 포졸은 그냥 불날에 날리다 녹아버리는 눈발에 지나지 않았다.

"행여 딴 생각들은 내지 마오... 그런데 이곳에 어리굴나무 이웃마을인 새늘에서 건너온 청상과부는 없오?"

인담의 가슴이 뜨끔하였다. 그러나 그 질문도 우녀가 맞받았다.

"얼마전에 물 위에 뜬 무명치마자락 나무랑이가 떠났지요. 용궁(龍宮)에 내려가 살겠지요. 아마도"

"물귀신이 되었다 그 말이군"

"나무아미타불"

"그만 건너가보세... 여기 백일을 있어 보아야 뽕나무에서 오디 하나 따먹을 것이 없군"  
그때였다. 우녀가 인담이 시켜서 열진한 냇(兩)을 그들에게 전하였다.  
"건너가서... 요기라도 하시구려. 이것은 우리가 탁발(托鉢)해서 얻어온 것이 라오"  
"허어 눈 하나가 떠지는군... 고마우이... 그러면 우리는 가오. 앞으로 이곳에 청나라 수적(水賊)의 황당선(荒唐船)이나 왜놈들이 나타나면 즉시 알려주시게... 우리 고을에서는 이 수역(水域)의 사정에 특별히 경계하고 있는 쪽"  
두 사람의 포졸이 탄 낙배가 섬에서 떠나간 뒤 섬에서는 새로 갈대정사(精舍)를 짓기 시작하였다. 두 채를 더 짓기로 한 것이다. 산꼭대기 울막과 기왕의 암자까지 손꼽자면 네채가 되는 것이었다. 만화와 남처사 그리고 수원들은 워낙 배 수선에 익숙한 솜씨라 소나무를 베어 바닷물에 담가두었다가 기둥을 세

우고 대들보를 올리는 일이 부자연스럽지 않았다.

김장하면 눈 오고 집 지으면 임이 오지라는 농담이 곰보처사의 입에서 나오기도 하였다.

젊은 미모의 과부 출신인 합두는 거의 핏속한 안색이었으나 후원의 작무(作務)에 부지런해서 밖의 일을 통 모르는 정도였다.

우녀가 그런 합두에게 일했다.

"공부 따로 있고 이런 부엌 일 따로 있다면 그것은 이 도량의 일이 아니네" 인제 이같은 말을 척척 할 수 있는 도량 공부를 한 우녀였는가. 우녀는 가령 사를 동안이 삼년의 수행을 능히 채우고도 남는 긴 시간의 참부적인 수행자였다.

인담이 그런 우녀를 행자(行者)로만 있게 하기가 거북해서 우선 소승(小乘)의 계(戒)를 받아 사미니(沙彌尼)가 되도록 은근히 권유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개를 저었다.

"저는 이대로의 무욕도 행자가 좋습니다. 먼 갈래에도 수미행자(須彌行者)일 따름입니다..."

태종의 하룻밤과 그 뒤끝이 가리얏은 뒤 어딴 한달 가까이 지나갔다.

인담 혼자서의 섬은 시간이 길었으나 그 시간을 여러사람이 나누어 가지는 탓인지 시간의 속도가 실로 빨랐다. 그렇다면 시간은 시간이기보다 마음에 다름

본 즉 관음(觀音) 후신인가. 천녀의 후신인가

그는 우녀를 생각하노라면 새삼 그녀의 진정한 권위를 쉽게 짐작 할 수 없었다. 바로 그런 것이 그녀에 대한 끝내 표현할 수 없는 사모의 정으로 되는지 몰랐다.

지혜와 애욕을 함께 누릴만한 여자였다. 그러나 그녀는 함께 사는데도 천리 만리를 떨어져 있는 먼 사람이기도 한 것이다.

인담은 그런 한 가닥 갈등을 입춘의 시 '꿈에 읊조리다(詠夢)'에 빚어 보기도 하였다.

계은은 이 몸 흔히 불날에 취하는데 꿈이 자주 규방의 베개맡을 찾구나 시 짓는 자리 서늘한 밤 이따금 바라볼 때 노래하는 누각 해 저물어 숲이 건너왔을 때 깨고나면 한바탕 인생에 견줄까 멀리 천리밖에 이별의 한도 전하누나 세상 일 던져두고 시를 잊었으니 이즘에 늘 감도는 곳은 내 고향산천인 것을 (疎慵多是泥春天 夢到香閣玉枕前 詩樓夜涼新曉 唱樓日晏酒尚牽 一場會把學生比 千里長將別恨傳 更爲尋夢拋世處 近來還憶故山川)

### "여기 살러 왔소이다" 하고 외치는 사람은 상전을 모신 하인배임에 틀림없었다 "누굴까"

아니다. 과연 유마(維摩)는 번뇌를 버리지 않은 채 열반(涅槃)에 들어가고 천녀(天女)는 마계(魔界)를 벗어나지 않고 불계(佛界)에 들어갔다면 그 유마와 천녀가 열반과 불계에 드는 시간도 시간이 아닐 것이다. 그 천녀가 바로 이곳의 우녀의 전신(前身)인가. 이곳 우녀가 그 천녀의 후신인가.

인담이 승조(僧叢)의 열반무명론(涅槃無名論) 한 구절을 영영 잊어버리고만 곳에서 문득 발가락을 찌르는 새금과리처럼 떠올린 것은 그가 유마의 지경에 뜻을 두기 시작한 까닭인지도 모른다. 사실인즉 그는 얼마전부터 승려이기보다 머리 기르는 거사가 되고 싶었던 것이다.

그래서 이 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하나 머리를 깎은 출가승(出家僧)이 되는 것에 대해서 그는 거사가 되어 그들을 섬기는 하심(下心)의 세계에 살고 싶었던 것이다. 아니 그 생각은 생각 뿐 아니라 새벽 꿈속에서도 그 자신이 숲 속으로 들어가 땀감의 일을 하며 '서하문집'이나 뒤적이는 한동안이 있었다.

이 무욕도를 개척한 그가 이제는 모든 것을 내주고 싶은 체념이 우녀의 헤아릴 수 없는 정신의 힘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내가 데리고 온 실성한 남자가 알고

그런데 깊은 밤 기러기떼 지나가며 떨어뜨리는 울음소리가 유난스러웠던 어느 늦가을 추운 물결 위로 돛 폭을 내린 배가 저어와 섬에 닿았다.

"여기 살러 왔소이다" 하고 외치는 사람은 상전(上典)을 모신 하인배임에 틀림없었다.

"누굴까?"하고 인담이 차갑게 바라보았다.

한 사람이 내리면서 가지고 온 짐도 내려졌다. 배는 조용히 떠났다.

"어서 오시지요"

라고 인담이 그를 받아들여야 하였다. 여기까지 뜻을 세워 건너온 사람에게 "왜 이곳에 왔오?"하고 묻는 것은 매우 부자연스럽기 때문이다. "차차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고 인사한 사람은 도포를 입고 있었고 이마에 관(冠)을 썼던 자국이 패어있었으나 사대부(士大夫)의 신분에만 딱 들어맞는 것도 아니었다.

그가 승종주 갑오년 조선 8도 전역에 일어난 지진(地震) 이래 세상의 권세를 갑자기 뒤흔던 것으로 여겨오던 김창협(金昌協)의 서얼 종무(鍾武)인줄 아무도 몰랐다. 과거에 급제하고도 숨어버려서 은급제(隱及第)라는 이름이 붙었던 사람인 줄도 몰라야 하였다.

이 가을에 방생을 어데로 갈까 망설여지지도 성진강 상류 마이산 탐사 아래 탐저수지에는 지금도 물이 가득차 있어 방생하기에 좋습니다.

## 신비의 관광지 마이산 탐사 탐영제 방생

한국의 불가사의 만불탐의 신비  
영험 있는 기도도량  
탐영제 맑은 물 방생

방생과 기도 관광을 1Km 경내에서 다 하실 수 있어 편리합니다.

0655-33-2900, 32-0652, 32-0072 전화하고 오시면 도움이 됩니다.

**전안 마이산 탐사**

## 대우자동차 전 차종 특별판매

대상차종  
아카디아 · 브로엄 · 프린스 · 에스페로  
씨에로 · 르망 · 티코 · 다마스 · 리보

- 리스 할부
- 인도금 없이 전액 차체 할부(국민차)
- 차종에 따라서 무이자 할부도 가능(한정판매)

자세한 문의사항은

• 전 화: 718-0973~4 • 호출기: (015) 305-3933 • 담당자: 이 계 천